

한일 미래 포럼 보고서



한일 미래 포럼이란?

-일본인과 한국인 청소년에 의한 새로운 한일 관계의 구축을 목표로 한일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더 나은 관계 형성을 위해 상호간 협력하여 방법을 생각해보는 만남의 장. 현재 한국과 일본이 겪고 있는 갈등 상황을 각 나라의 입장에서 이해해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019년 한일 미래 포럼 in 시마네현 주 활동

8/13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토론

21:00~22:00 목욕

8/16

8:30 셔틀버스 출발

9:00 퇴소

8/14

7:30~8:00 아침식사

8:30 현관 집합

8:35 출발

13:30~18:00 토론

21:00~22:00 목욕

*장소

시마네현 산레이크

8/15

7:30~8:30 아침식사

9:00~12:00 토론

12:00~13:00 점심

13:00~18:00 발표

18:00~20:00 바비큐

20:00~21:00 폐회식

2019년 한일 미래 포럼 in 시마네현 관광



-이즈모 대사 出雲大社

8월 14일 일정으로 이즈모시까지 열차로 이동한 뒤, 자유여행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즈모 타이사, 혹은 이즈모 오호야시로 등으로 불리우는 이즈모 대사는 제신 오오쿠니누시노오오카미(大國主大神)가 있으며 인연을 맺어주는 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음력 10월에 전국에서 800만 신이 이즈모 대사로 모여 신들의 회합이 이루어진다고도 한다.

2019년 한일 미래 포럼 in 시마네현 토의

본 보고서를 작성한 필자는 한일관광사업 부문에 참가함

-강제징용 노동자

강제징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알고, 일제강점기 시대 부당하게 일본으로 끌려가 노역을 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사례에 대하여 들은 뒤,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일본에서의 강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재일한국/조선인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이들이 과거부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현재에는 어떤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재일 한국/조선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젠더/페미니즘

한국과 일본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차별과 근래에 사회의 표면으로 나타나는 미투운동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났던 활동과 입장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일관광사업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불매운동에 따른 한국인의 일본 관광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관하여 정확히 얼마만큼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것이 실제로 영향력 있는 축소인지 분석해보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다시 원활한 관계 개선과 긍정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 한일 미래 포럼 in 시마네현 한일관광산업

포럼 신청을 넣은 것은 여름 방학이 시작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선택한 주제가 이리도 뜨거운 감자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급격한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한국은 '일본'에 관련된 주제에 매우 민감해져 있는 상태였다. 누군가는 반일을 지지하고, 누군가는 지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전체의 입장은 '반일을 지지한다'라는 의견으로 고정되었다. 이전부터 종종 있었던 일이기에 그리 놀랍지는 않았지만, 무턱대고 대중에 따라가기 전에, 이에 대하여 나만의 생각을 한번 할 권리 정도는 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인 이상 당연히 있지 않은가가, 그저 내 개인적인 생각이었다.

한일 관광 산업에서,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 양상과 관광 빈도를 조사하는 도중, 나는 우리나라의 일본 관광객 비율이 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죽하면 2019년 대한민국 1위 여행지가 도쿄라는 통계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방학과 연휴마다 쏟아져 내리는 특가 항공권 덕분에 한국인이 일본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아주 많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일본의 한국 관광객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추세였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비자 제한을 없앤 시기가 1993년이고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를 없앤 것은 2005년이라는 것을 비교해 볼 때, 확실히 관광객 수에서 차이가 크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환율과 접근성, 인식, 자연재해 등 다양한 원인을 따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관광'이라는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기 좋은가에 달렸다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관광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고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대비 또한 적은 것이 실정이다. 현재에는 한류의 힘에 기대어 젊은 층의 관광객들의 유입률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의 한류 관광에 대한 접근성은 외국인에게 그리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한국만 하더라도 일본으로 여행을 갈 때 필요한 모든 패스권과 관광 코스에 대한 패키지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광은 단순히 경제적 이윤을 남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알리고, 세계에 더 많은 관계성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험과 같은 것이다. 지금처럼 아슬아슬한 국제 관계 사이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이 그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해서 관광객의 유입을 원활히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이 일본에게 있어서 관광 분야의 최대 고객인 것과 같이, 한국 또한 가장 접근성이 높은 이웃나라인 일본이 언제나 우리의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여야만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한일 갈등의 양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계기를 만들 수가 있다. 양쪽에서 관광객들이 오가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한일 관광 산업의 핵심 목표이자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다. 다만, 결국 함께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2019년 한일 미래 포럼 in 시마네현 후기

일본의 한국 화이트 리스트 배제 선언 이후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여느 날과 같이 뉴스를 시청하고 신문을 구독하던 중, 문득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토록 자명하게 누가 잘못했는지가 뚜렷함에도 일본인은 이 사태에 관하여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인

지에 관하여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이었다. 한국에서만 바라봐도 수많은 사람의 의견 하나하나가 다르고 불매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정말로 일본인 전체가 같은 생각을 할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타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가 매우 궁금해졌다. 그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과 이렇게나 가까이 있음에도 잘 알지 못하는 이웃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이 포럼에 참가하게 된 나의 모든 이유라고도 할 수 있었다.

한일 미래 포럼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도 꽤 흥미로운 일이었다. 국내 대부분의 언론에서 일본에 험한 세력이 늘고 있다고 보도하는 것과는 달리 외부에서 관광할 때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떠한 위화감도 느끼지 못했고, 그저 어디서든 그러하듯 평범하게 첫 만남 때는 어색하고, 대화를 하며 친해지는 과정을 밟을 뿐이었다.

토의를 진행하는 동안의 대화는 많은 부분에서 배울 것이 있었다. 한국의 불매 운동이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본의 관광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보도를 많이 보았음에도, 정작 일본 내에서는 불매운동에 대한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었다고, 사람들도 딱히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에 우리나라의 보도가 꽤 편향된 측면에서만 보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현재 한일 관계의 입장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애초에 양국의 보도가 각 국가의 입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보도가 되고 있었다는 것도 새로 알게 된 사실이었다. 한국과 같은 경우, 이번 사태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선언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일본은 처음부터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한국의 경제 악화로 인한 자국 보호를 위한 것이기에 문제 삼고 있지 않아, 한국의 불매 운동과 이후의 행적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장이 어긋나 있었던 것이었다. 직접 대면하여 대화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이야기였던 만큼, 가까우면서도 멀리 사는 이웃 나라의 사람들과 가진 대화는 꼭 막혀있던 사회에 대한 시간을 조금이나마 넓혀준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3박 4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난 뒤 내가 내린 결론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다. 국가, 인종, 종교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고, 모두 나름의 타당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화를 통해 이 다양한 의견을 알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금처럼 이런 기본적인 소통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주변의 당연한 생각을 의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 이렇게나 발달하였음에도 결국 직접 보고 듣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은 여전히 많으니까 말이다.